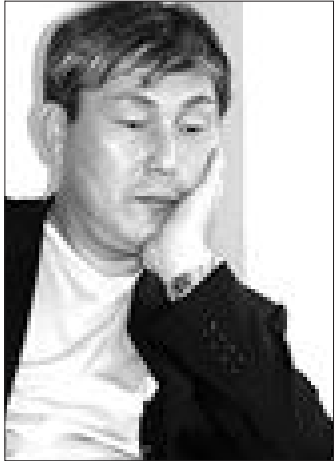


[ 바 둑 ]

바둑도 흥미진진한 기록의 스포츠



〈조훈현 9단〉

야구를 '기록의 스포츠'라고 하지만 바둑도 흥미로운 기록들이 풍성하다.

한국바둑이 역사가 오래된 메다 현재 프로 기사들도 211명을 헤아리지만 유독 조훈현과 그의 제자 이창호가 기록 부문은 거의 독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창호가 황제로 군림하고 있지만 최다 출전·최다 타이틀로는 스승 조훈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조 9단은 235차례 대회에 출전, 무려 157회 타이틀을 쓸어담았다. 이 9단이 168회 출전, 131회(비공식 2회 포함) 우승으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훈현 9단은 통산 최다승 기록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62년 입단 이래 올해까지 무려 1천684승(662패9무)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다.

서봉수 9단이 1천387승으로 추격하고 있지

조훈현 통산 1,684승 '추종 불허'

2위 서봉수 1,387승 불과...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듯

'황제' 이창호 최다출전·타이틀 등 아직은 스승 못 넘어

만, 조 9단의 기록을 갈아치우기는 쉽지 않다 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같은 대회를 독식하는 타이틀전 최다연패 신기록 보유자도 조 9단이다. 그는 지난 77년 13기 패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93년 28기 까지 무려 16연패 기록을 갖고 있다.

올해 기성전 12연패를 달성한 이창호가 스승의 기록을 갈아치우려면 오는 2011년까지 내리 우승해야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록은 경신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격언이 있지만 조훈현 9단이 보유하고 있는 최연소 프로 입단기록은 '난공불락'이다. 53년 3월생인 조 9단은 불과 9살이던 62년 10월에 입단, 바둑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바둑황제' 이창호가 11살에 입단했으며 이 세돌, 최철한 등이 12살에 입문하는 등 입단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신기록의 주인공은 쉽사리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 9단은 최연소 타이틀을 홀더로 남아 있다. 그는 불과 14살이던 지난 89년 제8기 KBS바둑왕전을 제패하는 기염을 토했다.

최고령 타이틀을 홀더는 49살 때 제1기 최강자전과 제1기 KT배에서 각각 우승한 조남철, 조훈현 9단이 주인공이다.

'짜릿한 뒤집기'로 설명되는 2연패 후 3연승 타이틀 획득 부문도 이창호가 단골이다. 그는 90년 30기 최고위전에서 스승 조훈현 9단에게 2연패를 당한 뒤 3연승으로 타이틀을 타내는 등 무려 6차례나 역전승부를 연출했다.



〈이창호 9단〉

기록으로 본 바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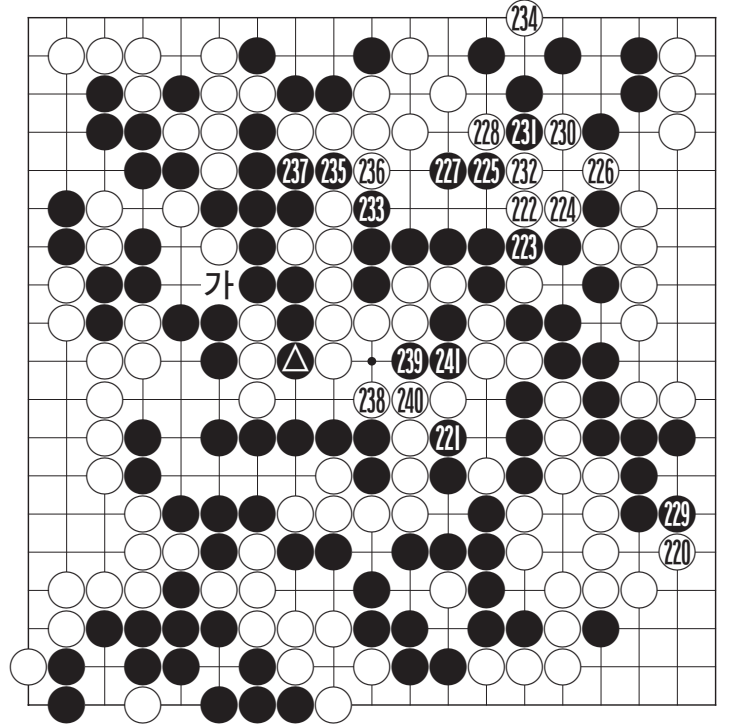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Record Name and Player/Count. Includes records like 최다 출전 (235회), 최다 타이틀 (157회), 통산 최다승 (1,684승), etc.

단일 기전 최다연승 기록의 주인공도 이창호다. 그는 지난 99년 제1회 농심신라면배에서부터 2005년 6회 대회까지 무려 30연승 무패가도를 달랐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제15회 光日盃 광주 전남 직장인바둑대회

어이없는 대참변 3회전 제 11보 (220~241)

白 김영수 5단 (빛고을고사회) 黑 박광주 5단 (포스코)



흑 221이 백 220을 차지해 이제는 백의 승리확정 판정이 내려졌다. 이젠 흑이 던져도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단체전이 걸려 있기 때문에 박광주 5단이 팀원의 성원을 생각해 쉽게 던지지 못하고 있다.

상대가 던지지 않는데 짜증이 났을까, 김영수 5단은 아예 222로 치중해 또다시 수를 내기 위해 흑 대미를 양분하고 나선다.

흑 227로 목숨만 건지자고 했을 때 백 228로 끊은 수는 전혀 불필요한 수. 그냥 229에 밀고 들어가 상대에게 후수로 연결하는 골목을 안겨주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러면 상대도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항사를 써야 했을 것이다.

흑 223이 백 대마의 차단을 엿보는 수로 이 수 때문에 흑 대마는 선수로 살아 있다. 그러나 김 5단은 이미 이쪽은 있어버렸다. 백 대마가 죽는다는 것은 각본에 없다. 그래서 음흉하게 234로 삼번 흑을 잡으려 했는데 이 수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통탄의 패착이 되었다.

박광주 5단이 득달같이 흑 235로 차단에 버리자 그 순간 백 대마의 숨통이 끊어져 버렸다. 너무도 어이없는 대참변의 순간이다. 이것으로 아무 여지도 없이 바둑도 끝나버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日 다카오신지 명인전 도전

내달 8일부터 장수와 격돌

일본의 다카오신지 9단이 장수 9단을 상대로 명인 타이틀 매치를 벌인다.

다카오신지 9단이 최근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31기 명인전 리그전에서 판산지 7단을 꺾고 종합전적 6승 2패로 명인전 도전권을 따냈다.

다카오신지 9단은 오는 9월8일부터 명인타이틀 2연패를 기록 중인 장수 9단과 나가오카시에서 결승국을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프로기사 해설도 10인10색

굳이 바둑팬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문지면 한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손바닥 만한 바둑판을 보지 못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주로 프로기사들이 둔 바둑내용을 취급하고 있는 이 난은 '한 판의 대국을 관전하여 기록한 것'이라 하여 문자 그대로 관전기라 한다.

최초의 기본자료는 대국자들이 남긴 한 장의 기보. 여기에 대국자 또는 제3의 프로기사가 상세한 해설을 곁들이고, 마지막으로 전문 필자에 의해 가공된 것이 관전기이다.

재미있는 점은 프로기사의 해설에도 제 각각 개성과 컬러가 다르다

조훈현 알아 들으면 아마 5단

이창호 한두마디 톡톡 신문답

루이 한국말 세마디로 거뜬

는 점, 현직 관전자들에게 프로기사의 삽입입색 해설 스타일에 대해 들어보았다.

▲조훈현 9단= 관전자들 사이에서 조훈현 9단의 해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해설로 통한다. '조훈현 9단의 해설을 알아들을 수 있으면 무조건 아마 5단 이상'이라는 말은 관전자들 사이에서 꽤 널리 알려져 있다.

▲이창호 9단= 이창호 9단의 해설은 '여백의 해설'이다. 한 마디로 생각이 많다. 그가 들려주는 수의 깊이는 심원과 같지만 필자들은 과롭기 짝이 없다. 그나마 가끔 한두 마디씩 톡톡 던지는 말은 기호 신문답에 가깝다는 것이 관전자들의 증언이다.

▲루이 나이웨이 9단= 루이 9단은 중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가 서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해설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좋아요" "나빠요" "위험해요". 그는 단 이 세 마디로 바둑 한 판의 해설을 거뜬히 해쳐주는 것이다. 바둑을 괜히 '수담(手談)'이라 하는 것이 아니다. /연필뉴스

영화안내 Happy Time 영화안내

메가박스 구.현대연극시극거리 02-1544-0800

엔터시네마 총장르 5가 ☎ 228-2700

마이애미 비이스 마이애미 비이스

컬럼버스 시네마 아남점 상무점

씨너스 광주 8개관 8월 초 오픈 T.383-3445~7

건물매도 모든업종 최고요지 위치 39-1(동부서원) 대지 136평 건평 590평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일가공인중개사 상가부지 및 상가부지

LC타워(주) 첨단지구 LCE타워

21세기부동산건설(주)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

현대공인중개사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